

◎ 김경선(金景善), 『연원직지(燕輓直指)』, 1·2권

● 해제 & 서

- 1832(순조32)~1833년 동지사 겸 사은사 서경보의 서장관 김경선의 사행기록
- 1811년 홍경래의 난. 1813년 제주민란. 1814년 서울에서 양곡 고갈로 폭동 발생.
- 1816년 영국군함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충청도 마량진에 음. 1832년 영국상선 로드암허스트호,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에 나타나 처음으로 통상을 청함.
- 1815년 충청.강원도에서 천주교 탄압(乙亥教難). 1831년 로마 교황청, 천주교 조선교구 창설.
- 1834년 헌종 즉위, 왕대비 수렴청정. 1836년 정약용 사망, 프랑스 신부 첫 입국. 1839년 앙베르 주교. 샤스땅 신부. 모방 신부 및 신자 다수 처형됨(己亥教難).
- 김경선(1788:정조12~1853:철종 4) 본관은 청풍. 김식, 김육의 후손. 노론의 중심가계. 김윤식이 삼종손. 1851년(철종2) 진주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옴.
- 서장관 김경선을 제외한 정사, 부사는 모두 실제 직위보다 높은 가함을 썼음.
-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인용. “여러 의술가의 학설을 모아 종합하여 증세에 따라 방문을 낸 직지방(直指方)과 같은 것”이라 ‘연원직지’라 이름붙임.
- 1832년 6월 20일 배명. 10월 20일 한성 출발. 12월 20일 북경 도착. 2월 7일 북경 출발. 4월 2일 한성 도착.

● 연원직지 제 1권: 출강록(出疆錄)

6월 20일 배명

10월 17일 사대. 방물 포장. “사은이 순부(順付:돌아가는 인편에 부침)이므로 예물이 없음(30)”?

10월 20일 서울-고양

10월 21일 고양-과주

10월 22일 과주-장단-송도

(하루 평균 80리에서 100리. 40KM.)

10월 23일 송도-청석진-금천-평산

- 청석진에서 경기도.황해도 역 간 부마 교체.

- 여기에서부터 방기(房妓) 있음.

10월 24일 평산-총수-서흥  
10월 25일 서흥-검수-봉산  
(집에 편지를 꽤 자주 씀)

10월 26일 봉산-황주  
- 도중의 동선령과 사인암은, 고려 고종 18년(1209)에 몽고 장수 살레답이 침범하자 고려 장수 이자성이 사력을 다해 막은 곳.  
- 동선령 서쪽의 정방산성을 보면서, 병자호란 당시 김자점의 무력함을 통탄함.

10월 27일 황주  
10월 28일 황주-중화  
10월 29일 중화-평양.  
11월 1일 평양  
- 사신 행차의 마부를 평양에서 뽑음. 관화(官話:중국어)가 가능한 서쪽 사람 위주. 직업 없는 사람들 수백명이 역노의 이름을 빌어 뽑히기를 바람.

11월 2일 평양-순안  
11월 3일 순안-숙천  
11월 4일 숙천-안주  
11월 5일 안주  
- 청이 심양에 도읍한 뒤 병영을 철용에서 안주로 옮겼는데, 위치는 요충지이나 군비가 고갈되어 변에 대처할 수 없다 하니 한심한 일.

11월 6일 안주-가산  
- 가산은 홍경래의 난(“신미년 난리”)이 일어난 곳.  
11월 7일 가산-정주  
11월 8일 정주-곽산-선천  
11월 10일 선천-철산(차련관)-용천(양책관)  
- 순조 10년(1810)에 새로 쌓은 동림산성은 성만 있고 군사도, 식량도, 군기도 전혀 없음.

11월 11일 양책관-소관관-의주  
- 의주에서 20일까지 머무르며 방물 최종 점검.  
- 의주의 수성촌은 1641년 김상헌이 심양에서 돌아오다가 1년 동안 산 동네.  
- 서장관의 서압(수결)을 철도장으로 만들어 목패에 찍어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여러 사졸들에게 채움.

11월 21일 의주-구련성-온정평  
- 노숙. 의주부(=만부)에서 10일 전에 다리를 수리하고 길을 닦고 칸을 만듦.  
- 연암 시절의 압록강 건너기 전 철저한 수색 검문(51)은 사라짐.  
- 일행은 국경을 나서는 옷으로 고쳐 입음.

- 압록강을 건너자 좌우에 우거진 갈대숲 때문에 봄이나 여름의 고초 짐작. 최근에 국경 금령이 해이해져서 의주 나무꾼이 많이 도강하나 금지하지 못하고 상례가 되어버렸음.
- 압록강기. <당서(唐書)>에 따르면 “색깔이 오리머리 같으므로 압록강”. <산해경>에는 불함산,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백두산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압록강.
- 인마도강수(56): 정사 서경보, 부사 윤치겸, 서장관 김경선.
- 중강기(61). 중강개시(開市)에 대한 비판. 경기, 양서(兩西:평안도와 함경도)에 비용만 많이 들고 청나라만 좋은 일.

11월 22일 온정평-책문

- 국경 문의 여담음이 원래 절차가 있는데 근래에 해이해졌음. 보문통사(報門通事): 역관을 보내 인원과 마필 수를 봉성장군에게 보여주고 문 열어 주기를 청함.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책문을 나올 때는 별다른 검문 절차 없음. 사서(史書). 궁각(弓角) 등 반출금지 품목도 뇌물만 주면 통과.
- 백년 전만 해도 사행이 수레 타는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모두 수레만 타고 역마는 아랫것들이나 탐. 수레 세 놓는 이권을 독점하는 자를 난두라고 함. 송사가 잦아 혁파됨. 수레 비용이 은 3천여냥. 무오년이나 병자년 때처럼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져 변경에서 수레를 못 빌릴 경우, 역마가 피폐해져 사신을 어떻게 갈 것인가 비판.
- 책문기: 책이란, 한길 반 되는 나무를 늘어세운 것. 사람이나 말이 드나들 틈이 없음.
- 문시(門市): 책문에 열리는 시장. 여기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공적 비용을 충당하게 된 후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짐. 의주 사람들이 제집앞같이 왕래하며 매매하는 데 대한 김경선의 경계.
- 입책 후 연로 하정기(73): 북경까지 모두 노정의 지방관이 공급. 일반 객주에 머물 때에는 호부.공부. 광록시에서 물품을 공급. 그러나 읍이나 참이 가는 길에서 멀어 매양 스스로 준비하여 밥을 지어 먹음.
- 아역 마패 호행기: 아역1+ 마패1+ 북병장1+ 보고2+ 갑군18=23명이 책문-요동-심양-광녕-산해관-북경까지 사신행차 호위가 준례. 그러나 현재 4,5명에 불과하고 심양을 지난 후에는 한명도 없음. 인원을 줄이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음. 갑군의 무장상태가 형편 없어 “중국의 군사상태가 모두 이렇다면 또한 죽히 두려울 것이 없겠다.”
- 가는 곳마다 관제묘(관우의 묘)가 있음.

11월 24일 책문-건자포

- 통관 서종맹은 포로로 끌려온 우리나라 사람의 후손. 우리나라 사람의 고혈을 빨아 거부가 됨.
- 간차적 예급기(마부 톱 주는 이야기): 삼사신의 수레값을 3영에서 나눠 냄. 정사는 관서에서, 부사는 만부에서, 서장관은 해서에서. “도중에 더러 수레가 뒤집힐 염려가 있었으나, 나만은 무사했다.”
- 봉황성기: 안시성주 양만춘과 당태종의 일화에 대해 의구심 표명. 김부식의 <삼국사기> 또한 신뢰하지 않음. 이 성 자체가 안시성이 아니라는 의견 개진. “요동이 본래 조선의 옛 땅으로서, 숙신. 예맥. 동이의 여라가지 종족들이 모두 위만조선에 복종하여 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오라, 영고탑, 후춘 등의 땅이 본래 고구려의 옛 강토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81)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지역을 찾으려면 먼저 여진을 국경 안에 합치고, 다음

패수를 요동에서 찾아야 한다.”(83)

11월 25일 건자포-황가장-통원보

- 황력 자재관(중국의 책력을 받기 위해 가던 우리 관원)에게 수본을 얻어보니, 황제가 영길리국 일의 처리에 비단 80필로 표창.

- 영길리국 표선기(86): 1832년 7월, 영국 배가 홍주 불모도 뒷바다에 표류, 고대도 앞 항구에 정박시킴. 필담하였는데, 대청관계에 대해, “교역하는데, 두 나라가 고루 크고 세력이 같으므로 진공(進貢)하지 않습니다.”(87) “북경에 가도 계하에서 고두하지 않습니다.”(87) “공적으로 무역 조역을 하려고....귀국의 대왕 천세폐하께 문서를 바치려고.....”(87) “우리들이 양가죽. 우단. 담털. 담비모자. 유리그릇. 시계 등의 물품으로 귀국의 금.은.동과 대항 같은 약재 및 다른 물화를 사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보고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88) 선원은 67명. 선장은 자작. 공적인 배라고 말하고 있으며, 환도가 30자루, 총이 35자루, 창이 24자루, 대대포가 8문. 문답하는 동안 배 안을 훑쳐보려 했으나 실패. 물품목록도 보여주지 않음. “그 사람들의 용모는, 더러는 희어 분을 바른 것 같고 더러는 검어 먹을 칠한 듯 하며, 혹 머리털을 완전히 깎기도 하고 혹 정수리를 깎아 버리고 뇌 위의 털을 조그맣게 한 가닥으로 짧아 드리웠다.”(92) 충청감사의 장계를 보면, 그들의 주문과 예물을 반강제로라도 받은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 예물 도록에 지리서 26가지(97)가 눈에 띄어. 김경선은 별도의 논평 하지 않음.

11월 26일 통원보-답동-연산관

11월 27일 연산관-첨수참-낭자산

11월 28일 낭자산-왕보대-영수사

-요동대야기: 청의 변성 원인을 심양에서 일어나 요동을 확보한 데에서 찾음. “동쪽으로는 영고탐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열하를 제압하고, 남쪽으로는 조선을 어루만지고, 서쪽으로 향하여 천하가 감히 움직이지 못한 까닭.”(105)

-구구요동성기: 청이 명을 정벌할 때 명나라 장수들의 공과를 가리고 있음. “명나라 말년에 웅정필과 원응태의 죽음을 보건대 스스로 장성을 무너뜨린 것.”(114)

-동팔참기: “고구려의 옛 강토가 우리나라에 환속된다면 변방을 믿음성있게 할 만하여 나라 형세가 다소 신장되겠으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115)

11월 29일 영수사-난니보-십리하보

- 점사가 매우 큼. 몇백명을 수용하고도 남음.

11월 30일 십리하보-백탐보-심양

- 혼하기: 효종이 심양에 있을 때 정자를 지은 곳. 세자가 무를 심은 것도 이 땅.

- 심양성기: 심양은 한나라 때는 낙랑이 다스리던 곳이고, 위.수나라 때는 고구려에 속했으며....(120) 노가재 당시에는 심양 시장에 서책이 없었다는데 지금은 봉황성 및 책문 등지의 책자는 모두 여기에서 나감. 심양.산해관.북경 세 곳은 모두 성에 올라가는 것을 엄금함.

- 심양행궁기: “규모와 제작이 광활하고, 사치스럽게 화려하여 벌써 작은 나라의 안목을 휘둥그래지게 하니 북경의 다음 가는 곳임.”(123)

- 심양 이후 연로 소견: 심양 이후로 노상에 거마들이 매우 많은 것은 노가재 때나 지금이나 여전. 심양에서 북경까지 5리마다 있던 봉대와 신후(연락 뜻말)는 간간히 없어짐. 북풍을

안고 가게 되어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장 어려운 길.

## ● 연원직지 제 2권: 출강록(出疆錄)

12월 1일 심양-대방신-고가자

- 아랫것들이 심양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준례.
- 심양에 바치는 세폐는, 해마다 북경의 예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수량대로 준비.
- 심양에는 청 태종의 원당 사찰과 선조의 능들이 있음.

12월 2일 고가자-신민둔-백기보

- 청나라가 심양에 도읍한 뒤 백성을 모아 살게 하고 요역을 면제해 주어 성읍이 번창. 백성들을 위해 놓은 유하의 벽돌 다리를 보고, 좋은 법이라고 평함.

12월 3일 백기보-이도정-소혹산

- 기아로 인한 유랑민이 없는가 필답. “북경에서 황지를 내려, 부럼을 던져주고 주홀을 후하게 하므로, 모두 아무일 없이 편히 삽니다.”(137)라는 대답.
- 연대(煙臺)의 군사적 기능에 대한 회의.

12월 4일 소혹산-중안보-광녕참

- 관동병 지원 자금인 은을 싣고 가는 수레 백여대를 목격. 군역과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데 대해 “그들의 마음에는 또한, 어찌 하루라도 한(漢)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으랴?”(140)라는 비판적 태도.
- 황사로 인해 고통. 도중에 말이 죽으면, 말꼬리를 베어 귀국하여 신표로 삼음.

12월 5일 광녕참-여양역-석산참

- 무명 타는 집을 구경함.

12월 6일 석산참-대릉하보-쌍양점

- 낙타를 처음 봄.
- 대릉하기: 거류하와 대릉하는 연경까지의 강들 중 배로 건너야 하는 두 강.

12월 7일 쌍양점-송산보-주가점

- 심양사관 부준의 행렬과 마주침. “그 공역과 차사가 우리나라 사신에 비하면 배나 풍성”(149).
- 송산보기: 청병이 송산을 포위했을 때 효종이 심양에 있었으므로, 볼모가 되어 청나라 진중에 머문 적이 있음. 야사에 따르면, 1638년 우리나라 장수 이시영이 군사 5천명을 거느리고 건주에 들어갔음. 청인이 그를 위협하여 명나라와 송산에서 싸우게 함. 이 때 병사 중 이사룡은 “공포(公砲)를 쏘아 사상자가 없게 하여 본국 사람의 마음을 밝혔다.”(152) 사형. 1633년 청 태종이 금주를 포위하여 승리하고 오삼계가 도망간 이야기.

12월 8일 주가점-연산역-영원위

- 베짜는 집과 목공의 제도며 기계 등이 복잡하고도 편리.
- 영원성 남쪽 10리쯤에 각화도.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뱃길로 조회하러 갈 적에 배에서 내린 곳. 선조의 <조천일기>에 따르면, “각화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여러번 위험을 겪다가 겨우 물에 정박하려 하자, 청나라 유격대가 사방에서 노략질하여 도로에 통하지 못하므로, 명나라 군문(軍門)에 글을 올려.....남쪽 길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 지금은 훨씬 편해졌는데도 김경선은 “지금과 옛날이 다름(왕조가 바뀐)이 있으니 불행하다.”(159)고 함.
- 구혈대기: 청태종이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피를 토하고 죽은 대.

12월 9일 영원위-중우소-중후소

- 모창기: 우리나라의 관모가 모두 여기서 생산. 관모가 100%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중국인들이 밥을 많이 안 먹고도 주린 빛이 없는 것은 양고기 덕이라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

12월 10일 중후소-양수하-중전소

- 장날에 그 지방 토산물이 아닌 물건도 입수 가능케 하는 중국의 운송 칭찬.

12월 11일 중전소-팔리보-산해관-망해정-홍화점

- 강너모 참관.
- 장대기: 열하일기 인용, “만리장성을 보지 못하면 중국이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산해관을 보지 못하면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하고, 관외 장대를 보지 못하면 장수의 위엄이 높음을 알지 못한다.”(178) 오삼계가 산해관을 지킨 1642년에 만들어짐.
- 산해관기: “매양 전기에서는 만리장성이란 말을 보았으나,.....지금에 직접 그 성문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바라보게 되었으니, 서생의 노니는 것이 이만하면 만족하다.” “중산(서달)이 산해관을 설치함은 오랑캐를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오삼계가 관문을 열고 적병을 맞았다.”(182)
- 망해정기: 오삼계가 청병을 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성을 헐어 길을 만든 곳.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황제가 심양에 거둥할 적에는 반드시 여기를 경유.

12월 12일 홍화점-심하역-무령현

- 일행을 구경거리로 여겨 다투어 관람. 길가의 벽돌 굽는 곳 구경. 점사가 역시 매우 넓음.

12월 13일 무령현-쌍망보-영평부

12월 14일 영평부-이제묘-사하역

- 이제묘기: 백이와 숙제의 묘. 열하일기에 따르면, 사신의 행차가 여기에서 꼭 마른 고사리국을 끓여 점심을 먹으며 이들을 추모. 이제는 폐한 지 오래.

12월 15일 사하역-진자점-풍운현

12월 16일 풍운현-사류하-옥전현

- 장날. 경찰제.
- 고려보기: 병자호란 다음해인 1637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룬 마을. 압록강 건너

후 처음으로 눈을 봄. “너희는 고려의 자손이다. 너희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왔는데 어찌해서 나와 절하지 않느냐?” “여기는 고려의 할아버지만 있고 고려의 자손들은 없다.”(210)

12월 17일 옥전현-별산점-방균점

12월 18일 방균점-조림장-연교보

- 황도가 가까워져 시끄러운 거마 소리가 끊이지 않음.

12월 19일 연교보-대왕장-옥하관

- 길을 서두르느라 새벽 4시에 출발. (새해 열흘 전에는 북경에 도달해 있어야 했음)

- 정사와 서장관은 청복(淸服)으로 갈아입고 문.무반으로 반을 이루어 북경의 동문인 조양문으로 입장. “눈에 보이는 부러하고 기이한 것은 다 기술할 수가 없었다.”(220)

- 예부에 가서 표자문을 올림.

- 옥하관기: 명나라 때는 예부 근처 여관에서 지내다가 순치 초년부터 옥하관에서 거처. 1772년 ‘회동관’이라 함. 중간에 악라사 사람들이 점령하여, 우리 사신은 건어호동의 서관으로 이관. 그런데 악라사 사람들이 또 관을 옮겨오는 바람에 다시 옥하관에 관사를 정함. 관문은 삼사신 출입 이외에는 닫아 두고, 동쪽 협문으로 드나듦.

- 관소 아문기: 사신에게 공여되는 물품을 감독하고 관소를 나갈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제독 1인. 구례에는 신시(오후 3-5시) 후에는 문을 닫아 봉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 외문장 2인이 보고 3인과 갑군 20인을 거느리고 문을 지킴. 해가 저물면 관소 안의 장사치 쫓아내고 문을 닫음. 사행이 나가 유관하려면 반드시 채찍잡고 앞에서 인도함. 명나라 때와 총 초기에는 문의 출입을 엄금하였으나 요사이 와서는 청.조 양측이 구애가 없음. 다만, 공사의 자제들이 유관하는 것을 역관들이 매우 싫어함.

- 예부정표자기: 정사 및 여러 임관들과 예부에 가서 표.자문을 바치고 고두함.